중생을 향한 불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

경전에서 말하는 가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가피, 부처님이 전하는 안부

몇 해 전 한 스님과 함께 조문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스님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필자를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니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들으면서 고인이 누워있었다. 처음 마주한 낯선 상황이라 조금은 놀랐다. 알고 보니 영안실로 가기 전 고인에게 염불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유족의 간절한 마음을 병원 측에서 배려한 것이었다. 고인은 돌아가실 때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아미타불 소리를 듣고 평온한 얼굴로 바뀌었다고 한다. 유족은 고인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며 많은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불교에서는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2015년 불자들의 신행 수기를 엮은 책이 출간되었는데, 제목이 '가피'였다. 부처님의 가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행복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제2의 경전'이라는 출판사의 소개 글이 공감됐다. 그들에게는 '극한의 고통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서 한마음 돌이켜 만난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독자들은 수기를 읽으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가피 이야기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훌륭한 방편이었다.

이 책에는 '부처님이 전하는 안부'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문득 부처님의 수인(手印) 가운데 시무외인(施無畏印)이 떠올랐다. 글자 그대로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가 담긴 손 모양이다. 대개 오른팔을 어깨높이로 들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중생이 찾아오면 부처님은 온화한 모습으로 손을 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될 거야'라고 말한다. 이 역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이자 안부였던 것이다.

가피란 한자로 더할 가(加)에 입을 피(被) 자를 쓴다. 불보살이 중생에게 은혜를 더해 입힌다는 뜻이다. 이웃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신의 은총'인 셈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고 행복해진다는 의미가 담겼다. 기독교인이 신의 은총을 받고 싶은 것처럼, 불자 역시 부처님의 가피를 원한다. 불교에서 가장 철학적인 경전이라 일컫는 〈화엄경〉에는 가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살은 중생에게 무한한 자비로 항상 보호하고 힘을 더해주나니, 이를 가피라 하느니라."

중생을 향한 불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가 바로 가피라는 것이다. 자비의 종교라는 불교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일상에서도 아프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알 길이 별로 없다.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내야 이를 듣고 누구라도 달려와 구해주는 것이다. '당연히 알아서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보살은 없다. 흔히 하는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
가피, 서원 세우고 실천할 때 주어져
서원은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
발심 · 원 · 행으로 삶 질적 변화 이루길

그렇다면 아프다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힘들 때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제가 아프니 제발 병이 낫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명상이나 기도, 염불, 참회 등의 수행이다.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야 가피라는 반응이 오는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 아미타불을 염하면 즉시 가피를 얻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念)하면 가피를 얻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유족도 극락왕생을 발원하면서 염불 수행을 했고 돌아가신 고인에게 아미타불 소리를 들려준 것이다. 〈법화경〉에도 관음보살의 가피를 설명하는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 있다. 어려움에 부닥친 중생이 관음보살을 부르면 즉각 응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여러 경전에서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피는 중생이 기도나 염불 등을 통해 아프다는 표시를 하고 이를 들은 불보살이 자비와 은혜를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정 부분 복을 빌고 구하는 기복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를 굳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가피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실존적 의미를 성찰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 글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다.

서원을 세우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발원 드립니다."

불자들의 행사나 법회가 있을 때 사회자나 법사가 마지막 인사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만큼 가피를 받으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피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염불이나 절, 명상 등의 수행을 해야 한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등의 경전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현대불교 신문에서 제공하는 AI상담봇 해심이(解心)에게 가피에 관해 물었더니, 이런 따뜻한 답변이 돌아왔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으로 기분 좋아지는 설명이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먹구름은 저절로 사라진다. 삶을 어둡게 했던 슬픔과 절망, 고통이라는 먹구름이 모두 물러가면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춰준다. 〈지장경〉에서도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 업장이 경감되고 재난이 소멸된다"고 했다. 실제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 지장 기도를 통해 가피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일도 있다. 해심이 말대로 가피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힘이자 밝은 빛이었다.

개인적으로, 가피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서원은 소원(所願)과는 내용과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다. 소원이 '~해주세요'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서원은 이와 달리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아픈 사람이 부처님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소원을 비는 행위다. 반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사람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확률이 훨씬 높다. 주위에서도 심하게 병을 앓던 사람이 원을 세우고 매일 108배를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는 경우를 보게 된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참회, 발원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떤 수행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자연스레 치유될 것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변화는 이럴 때 찾아온다.

불교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기복적인 면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신앙도 성숙되어야 한다. 소원에서 벗어나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불교 의식이 끝날 때 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은 '중생을 다 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로 시작한다. 서원에는 무엇인가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삶의 질적 변화는 소원에서 서원으로, 그리고 다시 행원(行願)으로 이어질 때 찾아온다. 가피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세우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가피를 얻는 방법은 보살의 길을 제시한 보살도(菩薩道)의 구조와 일치한다. 가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낸(發心) 다음 구체적인 원(願)을 세우고 바라밀 등의 실천(行)을 해야 한다. 보살의 길인 발심(發心)과 원(願), 행(行)이 진짜 가피를 얻는 비법인 셈이다. 이렇게만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어디 그뿐이던가. 마음이 일으킨 서원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참으로 멋진 인생 선물이다.

선물은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맛이다. 생일 케이크를 선물받으면 가족이나 벗들과 함께 나눠 먹지 않는가. 이처럼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과 가피가 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회향(廻向)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당부다. 내가 얻었으니,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값지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불교를 좋아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최고의 가피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공부와 수행을 벗 삼아 사는 것이 불자(佛子)의 행복이다. 그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위에 회향하도록 하자. 그것이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울산 백 양 사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백양사 주지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대표이사장
묵암 지선 합장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www.bysa.or.kr
YouTube 울산 백양사 검색
Ch 카톡에서 울산 백양사 채널 추가하세요


함월산 백양사.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7 / 052-243-8712 / 245-8712
백양사 유투브 YOUTUBE 울산 백양사